

金炳淵 詩集 翻譯 檢討

류연석(제1저자)* · 양동식**

〈차례〉

- I. 서론
- II. 이응수·백길순 판본의 비교
- III. 이응수·박오양 판본의 비교
- IV. 이응수·허문섭 판본의 비교
- V. 김삿갓 풍자시 전집의 검토
- VI. 번역상의 문제
- VII. 결론

I. 서론

이 논문에서 제시한 金炳淵 詩集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반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김병연(1807~1863)의 한시 모음집이 나온 것은 이응수에 의해서다. 초판(1939)과 증보판(1941)의 시집 제목은 『金笠詩集』이었다. 8.15 해방 이후 이응수는 북한으로 갔다고 한다. 필자가 입수한 문헌에 의하면 백길순이 1948년에 수록 내용이 거의 비슷한 『金笠詩集』을 내었다. 그 후로 박오양, 김일호 등을 비롯하여 많은 시집이 나오면서 시집의 제목이 바뀌었다. 예컨대 『放浪金笠詩集』(박오양), 『죽장에 삿갓쓰고 방랑 삼천리』(신

* 순천대학교 / ** 순천대학교

경림), 『김삿갓 詩集』(황헌식), 『방랑시인 김삿갓』(김용제), 『김삿갓 작품집』(허문섭), 『풍자와 해학의 방랑 30년』(권영한), 『김삿갓金笠 시집』(이명우) 등이 그것이다. 이응수는 1956년에 북한에서 다시 『풍자시인 김삿갓』을 낸 뒤 작고하였다. 2000년에 실천문학사에서 제목을 『김삿갓 풍자시전집』으로 바꾸어 출판했다.

이응수 『金笠詩集』 초판 발행자는 崔南周, 증보판은 韓奎相이다. 이후 1944년의 발행자는 西原奎相인데, 이것은 1940년 일제가 강행한 창씨개명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1944년에 발행된 『金笠詩集』의 표지화는 매우 흥미롭다. 삽화의 인물은 삿갓을 썼고 두루마기로 보이는 의상을 걸쳤는데 인물의 생김새가 일본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변화 이외에는 목차, 본문의 내용과 작품의 순서, 활자, 띄어쓰기, 맞춤법 등이 증보판과 꼭 같다. 심지어 오자나 탈자 까지도 그대로다. 다시 말하자면 증보판의 조판을 그대로 재사용한 증거가 역력하다. 그러므로 1944년의 西原奎相 판본은 검토에서 제외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 이응수는 북한으로 갔다. 정대구에 의하면 1940년대에 14회에 걸쳐서 『金笠詩集』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그 내력을 다음 <표-1>¹⁾로 제시했다.

<표-1> 『金笠詩集』 간행 통계표

연대별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계
간행횟수	1	14	6	0	10	10	31

이들 중 1948년의 백길순, 1948~1984년 사이에 무려 8차례나 발행한 박오양, 그리고 1994년에 초판을 발행한 허문섭, 이상 3명의 편저자가 엮은 김병연의 시집을 선정하여 수록된 작품 수와 작품

1) 정대구,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80쪽.

내용의 오자를 가려보고 『풍자시인 김삿갓』을 대본으로 번역상의 문제는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응수 『金笠詩集』의 논의는 생략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는 『南道文化研究』 제10집에서 이미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K C I

II. 이응수·백길순 판본의 비교

백길순의 『金笠詩集』 서문 말미에는 ‘西紀 一九四八年 九月 一日 小溪樓에서 編者’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므로 백길순의 『金笠詩集』 초판 간행은 1948년으로 추정된다. 논자가 입수한 문헌의 판권면에는 著作権兼發行者 白吉順으로 표기했는데 어떤 경위로 저작권이 이응수에서 백길순으로 이양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수록된 작품은 총 240편이며 前篇이나 後篇 구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科體詩는 후반부에 실었다. 이응수 판본의 전편은 200편, 과체시는 40편이다. 이응수는 <난고평생시>와 <영립>을 전편에 소속시켰으므로 백길순의 『金笠詩集』 前篇에 해당하는 작품수는 202편이다. 그러므로 이응수에 비하여 16편이 감소되었다.

백길순의 『金笠詩集』 202편 가운데에는 이응수의 증보판에서는 보이지 않는 <攬車>가 새로 수록되었다. 또한 <力拔山>이라는 제목의 작품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응수의 증보판 <金삿갓과 金剛山>의 한 부분이다. <題未詳>은 이응수 증보판에 <浮碧樓吟>으로 개명이 되어 있으며 <開城觀德亭吟>에서도 다시 소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題未詳으로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응수의 증보판의 <仙人盈像>은 <仙人畫像>으로, <菰>를 <참외>로 백길순에 의해 임의 변경되었다. 특히 <咏影> 제 4수 “不影光明去絶蹤”은 國譯 부분이 누락²⁾되었는데 이후 이것을 박오양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백길순, 박오양 두 사람 가운데 그 누군가가 『金笠詩集』의 초판을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재사용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검토와 함께 이응수의 증보판에 출현한 본문의 오자를 백길순이 어느 정도 정정했는지를 보겠다.

지금까지의 김병연 생애와 『金笠詩集』의 연구서에는 백길순이 편저

2) 백길순, 『金笠詩集』, 大志社, 1954, 42쪽.

한 시집은 한번도 거론 된 일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가 그 판본을 입수하였다. 백길순 판본과 이응수의 『金笠詩集』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2>과 같다.

<표-2> 이응수와 백길순의 비교

이 응 수 (1941)				백 길 순 (1948)		
순서	쪽	오	정	쪽	정정여부	비 고
1	37	?頭	搖頭	205	O	
2	37	?口	掩口	205	×	
3	48	鼓立	孤立	12	×	叩立
4	51	椽	椽	7	×	像으로 오식
5	51	蓬窓	篷窓	7	×	
6	68	筋力	筋力	50	O	
7	69	筋力	筋力	51	O	
8	82	夜鳥	夜鳥	15	O	
9	84	膽膝	跪膝	25	O	膝跪로 바뀜
10	85	黃梁	黃梁	16	O	
11	94	鳩	鷗	21	×	
12	106	雲日	雪日	66	O	
13	112	天臺	天台	35	O	
14	119	?	羸	68	O	
15	127	矢	矣	87	O	
16	136	鳩	鷗	75	×	

이 응 수 (1941)				백 길 순 (1948)		
순서	쪽	오	정	쪽	정정여부	비 고
17	140	赤色	赤免	85	O	
18	148	爐邊	路邊	104	×	爐邊으로 오식
19	183	衛北	王風	131	×	衛風으로 오식
20	183	歸薺曲	歸哉曲	131	×	
21	183	周南	召南	131	×	
22	193	艸	卯			
23	193	太平	太半			
24	195	旭月	旭日			
25	201	緣水	綠水	143	O	

위의 <표-2>와 같이 백길순은 1, 6, 7, 8, 9, 10, 12, 13, 14, 15, 19, 25번을 문맥에 적합하도록 정정하였다. 그러나 2, 3, 4, 5, 11, 15, 16, 18, 19, 20, 21번은 정정하지 않았다. 또한 4, 17, 19번은 오히려 더 나쁜 오자를 내었다.

이상으로 보아 백길순은 이응수의 『金笠詩集』을 대본으로 하면서 일부 오자를 정정하기도 했으나 많은 예에서 임의로 개정하거나 오자를 더 발생시킨 것으로 관찰되었다.

Ⅲ. 이응수·박오양 판본의 비교

필자가 입수한 문헌에 의하면 서기 1954년에 발행한 백길순의 『金笠詩集』 서문의 서명 날자는 서기 1948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문에는 ‘57세 되던 3월 29일에 전라도 동북에서 별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314쪽 마지막 문장은 1936년 『野雜誌』에 발표한 誠一氏³⁾의 글이라고 하면서 ‘어디서 숨을 들이켰는지 알 수 없는 그의 一生’이라고 소개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지만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이상한 일은 박오양의 『放浪金笠詩集』에도 백길순과 똑같은 서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논자가 입수한 판본은 1956, 1975, 1978년에 간행된 3가지인데 이마저도 백길순의 서문과 박오양의 서문이 모두 똑같다. 작품의 편수와 내용은 물론 서체나 페이지 심지어 오자와 탈자까지도 동일하다. 백길순과 박오양의 판본 비교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백길순 판본과 박오양 판본의 비교

3) 誠一氏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책 명	저 자	서문날짜	작품수	페이지	저작권자	편자	발행자	발행일	발행처	정가
金笠詩集	白吉順	1948.9.1	240	314	白吉順	/	白吉順	1954.10.25	大志社	500원
放浪 金笠詩集	朴午陽	"	"	"	/	朴午陽	白東勳	1956. 2.5	大文社	700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金笠詩集』에 대하여 백길순, 박오양 두 역편자가 서문에 기입한 날짜와 작품수, 페이지는 물론 활자의 모양까지 동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기로 한다.



IV. 이응수 · 허문섭 판본의 비교

『김삿갓 작품집』의 엮은이 허문섭(1931 ~ 1984)은 중국에서 태어나 연변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그러나 이 작품집의 출판년도는 1994년이다. 생몰년대와 출판시기 사이에 10년의 격차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상이다. 이 시집은 그의 생존시에 이미 중국에서 출판되었는데 사망 이후 한국에서 다시 펴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응수의 『金笠詩集』과 비교하여 다음 <표-4>로 제시한다.

<표-4> 이응수 판본과 허문섭 판본의 비교

이 응 수				허 문 섭		
순서	쪽	오	정	쪽	정정여부	비 고
1	37	?頭	搖頭	168	○	
2	37	?口	掩口	168	×	
3	48	鼓立	孤立	14	○	
4	51	椽	椽	10	○	
5	51	蓬窓	篷窓	10	×	
6	68	筋力	筋力	45	○	
7	69	筋力	筋力	46	○	
8	82	夜鳥	夜鳥	18	○	
9	84	膽膝	跪膝	26	○	
10	85	黃梁	黃梁	19	×	
11	93	鳩	鷗	23	×	
12	106	雲日	雪日	59	○	
13	112	天臺	天台	34	○	
14	119	?	轟轟	61	○	
15	127	矢	矣	77	○	
16	136	鳩	鷗	68	×	
17	140	赤色	赤免	75	○	
18	148	爐邊	路邊	92		爐邊
19	183	衛北	衛風	118	×	
20	183	歸齊曲	歸哉曲	118	×	
21	183	周南	召南	118	×	
22	193	艸	非			
23	193	太平	太半			

이 응 수				허 문 섭		
순서	쪽	오	정	쪽	정정여부	비 고
24	195	旭月	旭日			
25	201	緣水	緣水	126	0	

위의 <표-4>에서 보듯 대체로 정정이 잘 되지 않았다. ‘爐邊’을 ‘路邊’으로 정정한 역편자가 있으나 허문섭은 ‘爐邊’으로 고쳤던 백길순과 박오양을 답습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한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백길순, 박오양, 허문섭 모두 <노총각구걸표>와 같은 長詩는 삭제했다.
- 2) <攬車>는 모두 추가했다.
- 3) <短句一句>는 모두 <斷句一句>로 오자를 그대로 등재했다.
- 4) 이응수 이외의 모든 역편자는 <菰>를 <참외>라고 임의로 정정했다.
- 5) 백길순은 박오양과 대차가 없으며 내용상 완전히 일치한다.
- 6) 허문섭은 이응수의 최종판(1956) 『풍자시인 김삿갓』을 참조했다는 증거가 있다. 다른 문헌에는 <大同難>이 수록되지 않았는데 허문섭의 『김삿갓 작품집』에는 실려있기 때문이다. 전술한바와 같이 허문섭은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조선족이며 연변대학 어문학부 조선문학 강좌 교수를 역임했던 유명한 학자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발행된 최종판 『풍자시인 김삿갓』을 입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V. 『김삿갓 풍자시전집』의 검토

실천문학사에서 간행한 『김삿갓 풍자시전집』은 리응수(이응수)의 최종판인 『풍자시인 김삿갓』을 ‘그대로 담아낸 것’인데 오자나 번역상의 오류도 그대로 담아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오자를 추가시켰다. 다만 <古木>의 ‘蚊龍’을 ‘蛟龍’으로 정정한 것이 1건 있을 뿐이다. 이하 실천문학사의 『김삿갓풍자시전집』 가운데 발행한 오자 10건을 <표-5>로 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김삿갓풍자시전집』 정오표

순서	쪽	오	정
1	85	流法	流去
2	98	元字	兀字
3	98	籍	藉
4	105	端年	端午
5	121	客	容
6	140	蒼出	蒼山
7	146	夜鳥	夜烏
8	150	緣	緣
9	170	洛花	落花
10	218	簫	簾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이응수의 최종판(1956) 평양 국립출판사의 『풍자시인김삿갓』과 서울 실천문학사의 『김삿갓풍자시전집』을 대조하였는데 서문에서 그대로 ‘이번에 펴내는 『김삿갓풍자시전집』은 1956년판 『풍자시인김삿갓』(평양. 국립출판사 刊)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고 한 바와 같이 오자나 탈자 뿐만 아니라 번역상의 오류까지 ‘그대로 담아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번역상의 문제

이응수는 『金笠詩集』 초판(1939) 서문에서 ‘中學 上級生까지라도 읽을 수 있도록 親切히 解釋하여 달라는 要求에서 不得不 無識을 무릅쓰고 解釋을 付하였다……’⁴⁾라고 했다. 『金笠詩集』 증보판(1941) 역시 註와 大意 뿐이며 翻譯을 하지 않았다. 시집의 이름을 『풍자시인 김삿갓』으로 바꾼 최종판에 비로소 한문 原作과 한글 번역문을 함께 실었다.

이응수가 8.15 해방후 북한으로 간 뒤에 백길순, 박오양 등을 필두로 많은 번역 시집이 출판되었다. 현재 시중에는 황헌식(1982), 황병국(1987), 허문섭(1994), 허경진(1997), 이명우(2000), 신영준(2001) 등이 내놓은 번역 시집이 유통되고 있다. 이제 김병연의 한시는 中·日·露·英·佛語版으로 번역되어 世界 각지로 퍼져나갔다. 김병연 詩의 발원지인 한국에서 오류를 바로 잡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백길순은 그의 『金笠詩集』 서문에서 ‘이 김립시집은 시인의 시편을 모아서 평명하게 解釋한 것이며 註解를 붙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시의 묘미를 감퇴시킬까 두려워하여 독자 스스로 터득하도록 解釋에 힘을 썼다’고 했다. 그러나 대체로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토씨를 붙인 정도에 불과하다.

이명우는 『김삿갓 金笠시집』의 서문에서 ‘지금까지 김삿갓 시집을 펴낸 분은 무려 20여 분이나 되지만 (황병국 선생은 주석을 붙였으나) 대부분 주석도 붙이지 않았고 漢詩의 독음도 없으며 의역을 많이 해서’ 새로 책을 꾸몄다고 했다. 또한 부록에는 ‘한시의 첫 구순서’를 수록하는 등 매우 발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김병연 시집의 최종판인 『풍자시인 김삿갓』에 수록된 90편의 번역시를 토대로 검토를 하겠다. 그 이유는 김병연 시의 채시자인 이응수가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번역시집 간행을 시도했기

4) 이응수, 『金笠詩集』, 學藝社, 1939, 8쪽.

때문이다.

이응수의 『풍자시인 김삿갓』은 한문 원문을 수록하고 한글로 번역한 시집이다. 내용은 인도주의사상과 평민사상을 표현한 작품들 19편, 풍자시 17편, 영물시 36편, 자연 풍경시와 향토시 18편, 연정시 6편, 도합 90편이다. 과채시는 6편이나 검토에서 제외한다.

1. <逢雨宿村家>의 ‘蓬窓’

‘썩스대 창’으로 번역하였으나 ‘蓬窓’이라는 용어는 없다. 그리고 ‘蓬窓’은 ‘거적을 씌운 배의 창문’이다. 그러므로 ‘봉창처럼 띠풀로 엮은 거적’ 등의 내용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골짜기의 초가에 뚫린 창문을 굳이 ‘배의 창문’에 비유해야 할 까닭이 없다. 어떤 이유로 ‘蓬窓’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는지는 해명하기 어려우나 이 기회에 변경할 것을 제의한다. 주택에서의 봉창이란 ‘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에서 종이를 바른 창’이다. 이때의 한문 표기는 ‘封窓’이다. 이렇게 적절한 용어를 두고 ‘蓬’이니 ‘篷’이라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大同難>

이 작품은 『金笠詩集』 증보판에 <破字詩>로 실린바 있다. 제 1행은 ‘難之難之蜀道難’이다. 大意에 의하면 ‘어려운 韻字를 찾아서 難字를 連하여 붙은데 對答한 句’라고 했다. 이명우는 『김삿갓 金笠시집』에서 제목을 <難字詩>로 정정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응수의 최종판에서는 제 1행을 ‘難之難之大同難’으로 바꾸었고 제목조차 <大同難>으로 변경했다. 채시자 이응수의 의도를 알 수 없다.

3. <難臯平生詩>의 ‘?口’

김병연의 자서전적 일대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2행이다.

搖頭行勢豈本習 머리를 굽신거려야 하는 신세가
?口圖生惟所長 어찌 타고난 본래의 습성이겠는가! 입을 놀려 살길을 피함
 내가 할 일 이로다⁵⁾

인용문의 두 번째 행 첫 글자가 ‘?’으로 처리된 것은 원문에는 모종의 한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자전에 없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다른 판본에는 이 문자가 楔의 大字부분이 手字로 되어있다. 이응수의 註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지금 집집 문전마다 가서 ‘한때 밥을 줍소서’ ‘하룻밤 잠을 빌리소서’ 머리를 끄덕끄덕 흔드는(搖頭)행세가 어찌 내 본습이겠으며 입을 가지고(?) 침이 마르도록 구걸질하는 나의 생활도계가 대단한 나의 장점인 듯 하나 이 역시 불가피한 현상이다.⁶⁾

위의 인용문에서도 이응수는 ‘입을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괄호 속에 미상의 문자를 표기했다. 그 괄호 속의 미상의 문자 대신에 들어간 ‘?’는 필자가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다. 그 까닭은 미상의 문자가 자전에도 없으며 컴퓨터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오양은 楔에서 大가 手로 바뀐 의미 미상의 한자를 “입을 버려 살기를 도모함은 오직 잘 하는 바이로다”⁷⁾

5) 이응수 『金筮詩集』 증보판, 大志社, 1941, 28쪽.

6) 위의책, 39쪽.

7) 박오양, 앞의책, 229쪽.

로 번역했다. 이응수, 백길순, 박오양 모두 독음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는 물론 문자 역시 알 수가 없다.

박오양의 『金笠詩集』 이후 50년이 경과한 뒤에 나온 허문섭, 이명우 그리고 실천문학사의 시집에는 모두 ‘楔’로 되어있다. ‘楔’은 ‘입을 비뚤게 하다’ ‘쓰다듬다’ ‘막다’ 등의 뜻이 있어 文意에 근접한 문자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김병연의 작품에서 ‘楔’이 사용된 예는 없다. 후대의 역편자들이 魯魚亥豕로 간주하여 임의로 정정했다고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허문섭은 “입을 놀려 살아감이 어찌 내 장기이랴”,⁸⁾ 이명우는 “입을 놀려 살길을 꾀함 내가 할 일이다”⁹⁾라고 번역했다. 애매한 문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정한 사실도 문제이려니와 ‘입을 놀려……어찌 내 장기이랴’와 ‘입을 놀려……내가 할 일이다’는 정반대의 의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이응수의 『金笠詩集』 증보판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의 150쪽에는 <槐村答柳雅士>라는 작품이 있다. 첫 수는 누락되었다. 제 3, 4행은 다음과 같다.

人說是非吾掩口
世爭名利子搖頭¹⁰⁾

<괴촌답유아사>(부분)

이 시는 백길순의 시집에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사람들이 시비를 말하나 나는 입을 다물고
세상이 명리를 다투는데 자네는 머리를 흔들도다¹¹⁾

8) 허문섭, 『김삿갓 작품집』 뜻이 있는 길, 1994, 177쪽.

9) 이명우, 『김삿갓金笠시집』, 집문당, 2000, 28쪽.

10) 이응수, 앞의 책(증보판), 150쪽.

<괴촌답유아사>(부분)

위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掩口’와 ‘搖頭’는 對句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이응수는 채시를 한 저작자이며, 김병연은 시의 저자이다. 채시를 한 저작자는 착각이나 혼동이 가능하지만 저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에 어떤 기호嗜好와 경향傾向이 있기 마련이다. 김병연은 위의 미상의 문자를 다른 작품에서 사용한 예가 없다. 그러나 ‘掩’의 사용례는 자주 나온다. 그 용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携來一簣掩風霜¹²⁾

<견걸인시>(부분)

柴門半掩走如飛¹³⁾

<나부>(부분)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口’는 허문섭, 이명우가 임의로 ‘설구揆口’라고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종류의 『金笠詩集』은 물론 화순 勿染亭에 세워진 詩碑나 영월군에서 건립한 난고문학관의 각종 관계 자료에도 ‘揆口’로 되어 있는데 ‘掩口’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吉州明川>의 ‘許可許可’

‘許哥’와 ‘許可’는 同音異字로 의미가 다르다. 즉 雙關法을 사용한

11) 허문섭, 앞의 책, 177쪽.

12) 이응수, 앞의 책(중보판), 54쪽.

13) 위의 책, 61쪽.

작품이다. 또한 번역문도 ‘허가가 많이 사나’로 되어 있어 ‘許哥許哥’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窓>

窓이란 窓門의 준말이다. 창문은 빛이나 공기가 통하도록 벽이나 지붕에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다. 그러나 내용은 사람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지시한 것이다. 창문으로는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다. 백길순, 박오양, 허문섭 등 모두 <창>으로 답습했으나 이명우만 <門>¹⁴⁾으로 바꾸었는데 매우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6. <長丞>의 ‘頭?’

面垢와 상대가 되는 頭塵이나 頭蓬의 오자로 생각된다. 자전에 없는 이 글자는 ‘疒+又+土’로 구성되어 있다. 형태상 ‘塵’과 매우 유사하나 의미상으로는 ‘蓬’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응수는 이 부분을 ‘머리는 좀이 먹었다’라고 번역하였으나 미흡하다. 또한 <多睡婦>의 ‘蓬髮垢面形如鬼’의 용례로 보아 ‘蓬髮’과 ‘垢面’을 對句하면서 ‘面垢’와 ‘頭蓬’으로 도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狗의 제1행 ‘稟性忠於主饋人’

이응수는 주에서 ‘饋인(饋人)=옛날 왕의 밥상을 주관하는 자’라고 했다. 물론 주석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주饋主饋’ 즉 개의 입장에서 ‘먹이를 주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14) 이명우, 『김삿갓 金笠詩集』, 집문당, 2000, 250쪽.

8. <狗>의 제2행 ‘呼來呼去’

호래척거呼來斥去에서 오자가 발생했다. 번역문 역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라고 오역되었다. 이 부분은 ‘개를 불러놓고 바로 내쫓는’다는 뜻이므로 ‘呼來斥去’로 정정하고 원의에 따라 번역함이 옳다.

9. <狗>의 제6행 ‘頌聲’

頌聲 즉 “공덕을 기리어 말하는 소리”¹⁵⁾의 오자이다. 이응수, 백길순, 박오양, 허문섭 등 모든 판본에 오식이 되어 있으나 이명우는 유일하게 정정하여 바르게 번역되었다.

10. <虱>의 ‘麴’

누룩은 ‘麴’이다. 따라서 위의 ‘麴’은 오자이다.

11. <虱>의 ‘半虱’

‘半虱’은 즉 이[虱]다. ‘虱’을 또 반으로 파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伴虱’로 정정하여 ‘이의 친구’로 번역함이 옳다.

12. <落花>의 제6행 ‘燕泥香逕蹴全空’

이 문장은 ‘鵲月青山啼忽罷’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응수의 번역문은 ‘이때 두견새는 청산에서/락화의 혼을 조상해 울고’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문의 내용과 반대로 번역했다. 즉 ‘두견새는…울고’가

15) 이명우, 앞의 책, 268쪽.

아니라 ‘두견새는…울음을 그치고’가 되어야 한다. 또한 “연니향경
전축공”의 번역이 ‘제비는 향기로운 진흙길에서 헛되이 꽃잎을 차
보는데’로 되어있는데 비약이 심하다. 역시 ‘제비는 진흙을 물고 공
중으로 차오른다’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13. <秋風訪美人不見>의 ‘衛北歸薺曲’

『詩經』에 나오는 부분으로 본다면 衛北은 衛風의 오기이다. 그러나
위풍에도 귀제곡은 없다. 다만, 王風의 <楊之水>에 “曷月予還歸
哉”¹⁶⁾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王風歸哉曲’으로 정정함
이 옳다.

14. <秋風訪美人不見>의 ‘周南采藻章’

『詩經』에 나오는 부분으로 본다면 周南에는 채조장이 없다. 다만
召南의 <采蘋>에 ‘于以采藻’¹⁷⁾가 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召南采
藻章’으로 정정함이 옳다. 자세한 근거는 증보판의 검토에서 제시하
였다.

15. <寒食日登北樓吟>의 ‘十里平沙岸上莎’

이응수의 주에 의하면 ‘사초(莎草)=뿌리를 향부자(香附子)라하며 약
에 쓰는 풀이름’이라고 했다. 물론 사초는 향부자, 띠풀 등의 뜻이
있다. 그러나 번역문에서 ‘십리 모래 언덕우에/사초가 푸른데’라고
한다면 이것은 ‘십리 모래 언덕 위에 향부자가 푸르다’는 의미가 된
다. 한식날이라면 대체로 양력 4월 초순이다. 야생에서 향부자가 푸

16) 심영환 옮김, 『시경』, 홍익출판사, 1999, 99쪽.

17) 위의책, 89쪽.

르게 보일 만큼 새싹이 돋지는 않은 시기이다. 김일호는 “바닷가 넓은 백사장에 향부자가 싹 틀때”¹⁸⁾라고 번역하였는데 오역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민속에 따르면 대체로 한식날 자손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사초莎草를 하는 등 묘를 돌아본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의 사초는 향부자가 아니라 ‘묘를 돌보는 작업’을 말한다. 당연히 번역문은 ‘사초하는 사람들’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上莎’의 上은 ‘○○위에’의 뜻이 아니라 上櫟(기둥에 들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를 올리는것)처럼 ‘○○하다’의 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VII. 결론

이응수 『金笠詩集』 초판의 본문에서 발생한 오자는 심각한 오역을 초래했다. 예컨대 ‘蓬窓’이 ‘蓬窓’으로 오식이 되면 ‘배의 창문’이라는 용어가 ‘쑥대 창’으로 번역되어 사물의 지시가 전혀 다르게 바뀌며 동시에 독자의 상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이 『金笠詩集』 초판의 본문에 발생한 오자는 총 19건인데 증보판에서 정정된 것은 12건이다.

『金笠詩集』 증보판의 본문에서 20건의 오자가 발생하였다. 역시 판본의 상호 대조를 통한 인지가 가능하며 작품 내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에서 발생한 오자는 매우 심각하다. <난고평생시>의 ‘?頭’가 ‘搖頭’의 오식이란 것은 認知가 가능하다. 그러나 ‘?口’를 ‘揆口’라고 임의로 정정한 것은 그 용어가 이응수 이후의 시집에 그대로 답습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모든 연구 논문에 그대로 인쇄되었고 관광지의 詩碑에도 똑같이 새겨졌다. 이러한 오자의 방치는 번역의 단계에서 심

18) 金一湖, 『金笠詩集』, 眞文堂, 178쪽.

각한 오역을 초래했다. 이응수의 『金笠詩集』 초판이 거의 사라진 지금 원전과의 대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응수 이후의 모든 시집에 그대로 고착된 이러한 오자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金笠詩集』 최종판은 『풍자시인 김삿갓』으로 책명이 바뀌었으며 역시 오자가 많았다. 이러한 오자들이 작품의 내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麩’이 ‘면麩’으로 오식이 되면 ‘누룩’이 ‘국수’로 바뀐다. 기타 ‘路邊’→‘爐邊’은 ‘길가’→‘화롯가’로 의미와 분위기가 바뀌는 사례가 허다하다. 특히 『詩經』의 인용을 잘못된 경우에 발생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예컨대 ‘歸薺曲’, ‘采藻章’의 원문을 찾아서 詩의 분위기를 명확히 이해하려는 경우 독자나 연구자는 오리무중을 헤매게 된다. 결국 포기하거나 『詩經』 전편을 모조리 뒤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김병연시의 채시자 이응수는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역편자가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답습한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이응수는 초판의 <無題>라는 제목을 최종판에서는 <靑山倒水來>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예는 허다하다. 이응수의 <吉州明川>을 백길순은 <無題>로, <譬世>는 <警世>로, <浮碧樓吟>은 <題未詳>으로, <仙人盈像>은 <仙人畫像>으로 변경시켰다. 이러한 예는 字形이 유사하여 오자가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한 이유로 정정한 것인지 구분할 수 조차 없다. 이러한 제목의 변동은 『金笠詩集』을 연구할 때 검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응수와 백길순, 박오양, 허문섭의 시집을 비교해 본 결과 백길순은 이응수의 『金笠詩集』을 대본으로 하면서 이응수가 발생한 오자 26건 가운데 12건은 정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실수를 범한 내용도 있다. 즉 이응수의 초판에 나오는 <菘(고미, 實名)>를 <瓜(참외)>로 임의 정정하였다. 그 이후 모든 판본에는 <참외>로 둔갑하였다. ‘줄풀’이라고도 부르는 벼과 식물의 곡식을 아무 논거 없이 박과의 야채류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필자는 ‘菘’에 대

한 연구자의 진술을 통해서나마 그 실체를 확인한 끝에 ‘甘瓜’를 수용했다. 더 나아가서 ‘西瓜’일 가능성도 있다고 제시한다.

詩語에서 사물의 명칭이 바뀌면 시의 내용은 물론 시적인 상상도 변질되며 작품을 통한 社會相의 유추도 판이하게 달라진다. 또한 박오양의 『金笠詩集』은 백길순의 시집과 너무나 酷似하여 누가 먼저 이름만 바꾸어 펴냈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허문섭의 『김삿갓작품집』은 이 응수의 최종판을 참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볼 때 김병연의 시의 번역에는 상당한 난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응수의 채시 과정에서 발생된 다수의 오자와 탈자, 그리고 제목의 변경 등이 『金笠詩集』 연구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초판·증보판·최종판에 대한 제목이나 본문의 字句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회나 연구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자들이 그 방면의 전공을 십분 발휘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어느 개인의 힘으로는 성취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이응수의 『金笠詩集』 이후에 출판된 30여 종의 작품집을 모두 대조하여 그 正誤를 가려내고 이응수의 소작이 아닌 작품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모든 작품집에는 삭제나 추가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김병연의 소작 여부에 관한 견해가 매우 산발적으로 출현하므로 여러 학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엄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응수의 『金笠詩集』 초판·증보판·최종판 이후에 발굴된 김병연의 작품을 추가한 제4의 『金笠詩集』이 출판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1990년에 언론계에 보도된 친필시 3편은 물론이며 현재에도

구전되고 있다는 ‘無等山高松下在 赤壁江深沙上流’의 등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병연은 거의 35여 년간 전국을 무대로 詩作을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 가운데 금강산에 관한 詩가 다수이다. 그 외에도 함경도에서 전라도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피난했던 황해도 곡산과 그의 출생지(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또는 강원도 영월을 소재로 한 詩가 단 한편도 발견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대로 전라도 지방에서 지은 작품은 매우 많음을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김병연의 詩作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차후 전남지방에서 지은 것으로 확실시되는 <過寶林寺>등과 같은 작품을 토대로 그의 행적과 문학을 재조명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난고김삿갓의 문학과 생애』, 김삿갓 유적보존회, 2002.
『大東詩選』, 편자·연대 미상
김종태외, 『東洋의 名畫』, 三星出版社, 1985.
문제선, 「김삿갓(金笠) 초분지(初墳地)에 대한 고찰(考察)」, 전라남도 문화원, 1999.
『임격정, 김삿갓 양주에서 태어났는가?』, 양주군 문화원, 2000.
星川淸親, 『食用作物』, 東京: 表賢堂, 1980.
이문열, 『詩人』, 아침나라, 2001.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月印, 1999.
정규복·진경환 역주, 김만중 『九雲夢』,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정 민, 『한시미학산책』, 서울판사, 1996.
최인선 외, 『보림사』, 학연문화사, 2002.

黃 五, 『綠此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2. 저서

- 김일순, 『脚註精解金笠詩集』, 학우사, 1956.
김일순, 『放浪詩人金笠詩集』, 진문사, 1953.
김일호, 『金笠詩集』, 學友社, 4286.
박오양, 『金笠詩集』, 덕영문화사, 1948.
백길순, 『金笠詩集』, 대지사, 1954.
신영준, 『김삿갓의 漢詩』, 투영미디어, 2001.
이명우, 『김삿갓金笠시집』, 집문당, 2000.
이응수, 『金笠詩集』, 학예사, 1939.
이응수, 『金笠詩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41.
이응수, 『김삿갓풍자시전집』, 실천문화사, 2000.
리응수, 『풍자시인 김삿갓』, 국립출판사(평양), 1956.
최석의, 『金笠詩選』, 동경: 平凡社, 2003.
허문섭, 『김삿갓작품집』, 뜻이있는길, 1994.
황병국, 『김삿갓시집』, 범우사, 1998.
황현식, 『김삿갓詩集』, 한빛문화사, 1982.

3. 논문

- 박대현, 「난고 문학관 金炳淵 친필 관련 자료의 진위에 관하여」, 『고서연구』 21호, 고서연구회, 2003.
박혜숙, 「김삿갓詩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윤은근, 「金笠研究」,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79.
이건호, 「金炳淵 詩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창식, 「김삿갓시의 구비문학적 성격」, 세명대, 2001.
정대규, 「김삿갓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1989.

<투고일 : 2004.12.30. 심사일 : 2005.1.20. 심사완료일 : 2005.2.2>

KCS I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Translation of Kim Byeong-Yeon's poetry

Ryu, Yeon-seok · Yang, Dong-sik

Kim Rip Shi Jib is the original text of Kim, Byeong-Yeon's(1807~1863) collected poetry. The research about the original text of *Kim Rip Shi Jib* is based on Lee, Eungsoo's first, second, and final editions of which the title was changed into *Satirist Kim, Satkat*. The secondary texts that are used for the comparison with the main text are *Kim Rip Shi Jib* by Baek, Gilsoon, Park, Oyang and Chinese poetry written by Kim, Byeong-yeon and translated by Heo, Munsub, Keon, Yonghan, Kim, Yonghan, Lee, Myoungwoo which has the same contents as 『Kim Rip Shi Jib』 but only changed its title.

Leaving the wrong words as unsolved led to serious mistranslation. Therefore, the wrong words handed down since Lee, Eungsoo should be thoroughly corrected.

Questions can be raised about the authenticity of the poems in the collection given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

Key words : *Kim Rip Shi Jib* is the original text of Kim Rip's collected poetry. Kim rip is Kim, Byeong-Yeon's nick name. Rip

means a bamboo hat

к с і